



1895년, 소년 이발사

교안 작성 : 김혜숙

이승민 글 | 심성엽 그림 |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감수

미래아이 | 10,000원 | 중·고학년

책 소개

낡은 정신을 잘라 버리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한 소년 이발사의 이야기! 《1895년, 소년 이발사》는 급변하는 개화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성장해 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당시의 사회상 속에 잘 녹여 그려낸 동화이다. 전에 없던 극심한 변화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 발 앞서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했던 소년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바가 크다.

어느 날 필상이의 아버지는 낫선 물건을 하나 가져왔다. 난생처음 보는 은색으로 빛나는 날카로운 물건, 아버지는 그것을 이발 가위라고 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귀한 물건이라고 했지만, 필상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으로 머리를 자른다니, 상투를 튼 양반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새로운 세상이 곧 올 테니 이발 기술을 배우라며 억지로 필상이를 일본인 이발사에게 데려가기까지 한다.

엄청난 위기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던 개화기 당시 조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12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마주했던 어지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개화기, 급격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소년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활동 목표

1. 옛날과 오늘날의 명칭과 지명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동화 속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2. 줄거리를 요약하고, 필상이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단발령을 결심한 계기를 이해할 수 있다.
3. 자신의 각오와 직업과 관련한 장래 희망을 담아서, 이발사가 된 필상이에겐 격려하는 편지글을 쓸 수 있다.

생각 열기

이 책은 18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오늘날의 명칭이나 지명 등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렸는지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황화방 양혜 왜성대 동헌 제종원 황토마루 배오개 시장 저고령당 경무청 우정총국

- ① 예장동과 회현동 1가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일본 공사관과 통감부 청사가 있었다. →
- ② 세종로와 신문로, 종로와 옛갈리는 사거리 고개 →
- ③ 1885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의료기관 →
- ④ 을지로를 일컫는 지명 →
- ⑤ 당시에 사용하던 초콜릿의 다른 이름 →
- ⑥ 구한말 우체업무에 담당하던 관청 →
- ⑦ 동대문 시장을 일컫는 지명 →
- ⑧ 주로 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든 서양식 구두 →



- 9 경찰과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을 이르던 말로, 포도청에서 갑오개혁 이후 변경되었다. →
- 10 정동 일대를 일컫는 지명 →

생각 펼치기

동화 속 시대적 배경 단발령은 힘없는 나라의 설움인가, 개혁인가?

다음 교재 154~159쪽을 참고하여, 물음에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청일 전쟁이 끝나고 고종은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바꾸기 위해 세 번이나 개혁을 감행해서 조선 사회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고종이 내린 단발령 조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고종은 궁 안에 이발소를 두게 했는데 당시 군수 벼슬을 하고 있던 안종호가 이 발사로 발탁되어 고종과 태자의 머리를 다듬었다. 안종호는 이전 벼슬보다 훨씬 높은 정삼품 당상관으로 올라 궁에 들어왔던 벼슬아치 이발사로 최고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단발령을 신체에 행해지는 심각한 위해라고 생각했다. 단발에 대한 반감은 개화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 발전했고, 명성왕후의 시해로 더더욱 감정이 격해져만 갔다. 따라서 단발은 곧 ‘일본화’라고 생각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개화파가 일본 침략의 앞잡이로 단발령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개화파 중 급진 개화파는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이들은 서양의 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정신문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서양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을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추진 당시 일본이 지닌 야욕과 침략적인 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본을 갑신정변에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개화파 중 온건 개화파의 중요인물은 김홍집으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개화를 추진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 거였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을미의병은 한양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이 일로 단발령을 강제 시행한 김홍집은 성난 의병들의 돌아 맞아 죽고, 유길준은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 최익현은 상소문까지 올려 이를 철폐하도록 요구하며, “내 목을 자르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김구는, “머리를 천 길이나 길러서 크고 훌륭한 상투를 엮었다손 치더라도 왜놈이나 양놈이 상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문명 각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학교를 세우고, 백성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건전한 2세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발령이 철폐되고 몇 년 동안 조선 내에서는 단발과 상투가 병존했다. 결국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단발을 하게 되었고, 개화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발소가 생기기 시작해 이발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되었다.

- 1 고종이 갑오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고종이 내린 단발령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
- 3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보세요. →
- 4 을미의병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

단발령과 1895년, 소년 이발사

필상이는 땡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서당에 다니는 천민 출신의 소년입니다. 신분이 천하다며 필상이를 멸시하고 시비를 거는 같은 반의 호철이가 몹시 알뜰지만, 대대로 권세 있는 양반이라 차마 어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호철이가 양반입네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서 그림과 관계된 줄거리를 간추려 보세요.

칙서(勅書) 짐(朕)이 발(髮)을 단(斷)하여 신민(臣民)에게 고(告)하노니 너희는 짐의 의(意)를 극례(克禮)하여 만국(萬國)으로 병존(并存)하는 대업(大業)을 성(成)케 하라	
왕이 먼저 단발을 했다는 내용의 왕의 칙서가 담벼락에 붙어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	
	
	
이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궁중 이발사인 안대감의 말에, 필상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발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필상이는 단발령을 지지하며 상투를 자르는 데 앞장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투를 자르는 것이 썩어 빠진 양반 정신을 자르는 것이라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다가 단발령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돌팔매에 아버지는 위험해지고 아버지를 돕는 과정에서 필상이는 오랜 세월 의문을 가졌던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비극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필상이 어머니는 어떤 계기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아래의 제시어를 넣어서 요약해 보세요.

제시어 → 천민 민대감 문갑 머리 칼 손등



또 아버지가 그토록 상투를 자르고 새 세상이 오길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의 제시문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아비는 상투를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아비가 자르려는 건 양반들의 썩은 정신이다!
머리를 천 길이나 길러서 크고 훌륭한 상투를 얹은 그악스런 양반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느냐!
그 높기만 한 상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줄 아느냐 말이다.”



새로운 시대의 꿈과 희망을 열다

《1895년, 소년 이발사》는 필상이가 살았던 120여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새로운 문화가 넘실거리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필상이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맞을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를 살고 있는 자신의 각오와 직업과 관련한 장래 희망을 담아서, 120여 년 전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기꺼이 이발사가 되기로 결심한 필상이에게 격려하는 편지글을 써 보세요.